

사회

‘심야 약국’ 광주·전남 6곳 뿐

제도 유명무실 ... 수퍼 등서 상비약 판매 불편 해소해야

광주·목포·순천·여수경실련 1453곳 조사

유흥지역 주변 몰리고 새벽 2시 문 닫기도

병·의원과 약국이 문닫는 야간에 대비한 ‘심야응급 약국’ 수가 너무나 적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응급약국은 광주와 전남에 각각 3곳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아닌 주로 도심이나 유흥가에 있어 응급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심야응급약국 수를 대폭 늘리거나 상비약을 심야에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 경실련과 목포·순천·여수경실

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전남의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과 주말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경실련 등에 따르면 광주는 총 652개의 약국 중 단 3곳(0.5%)만이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었으며, 전남도 총 801곳의 약국 중 3곳(0.4%)만이 밤에도 문을 열었다.

심야응급약국 제도는 야간에 소화제나 두통약 등 상비약 수준의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은 광주의 경우 자치구 수(5개)보다도 부족한 숫자로 인해 제 기능이 어려울 뿐더러 3

곳의 위치도 모두 구도심 또는 유흥지역인 동구 충장로에 몰려 있었다. 전남도 목포·순천·여수에 각각 1곳씩이 영업중이었으나 24시간 운영이 아니라 새벽 2시면 모두 문을 닫았다.

이와 함께 부실한 운영도 문제였다. 거의 모든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이 복약지도(판매하는 약에 대한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으며,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고충한 과타이며인지 알 수 있는 위생복 착용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광주에 있는 총 3곳의 심야응급약국 중 1곳은 밤에 문을 열지 않았으며, 문을 연 곳도 모두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생복을 착용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전남은 문을 연 3곳 모두 복약지도도 하지 않았으며 위생복 착용 역시 1곳에 그쳤다.

주말이나 명절에 문을 여는 당번약국은 광주 12곳, 전남 17곳에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광주

12곳의 당번약국 모두 복약지도는 없었으며 위생복 착용도 5곳만 있었다. 전남도 운영중인 16곳 모두 복약지도는 없었으며 위생복은 7곳만 입은 상태였다.

광주 경실련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의 안정성과 복약지도 등을 이유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약사회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감기와 소화제, 해열제 등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들을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초건강 지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박용섭 상임공동대표는 “광주·전남은 심야응급약국 수가 너무 적어 지역민들이 심야나 휴일에 불편한 만큼 약국 외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학생들 안타까운 자살

광주서 고교생 2명·여대생 잇따라 투신

최근 광주지역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18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빌딩 앞에서 광주 모 고교 2년 A(18)군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이날 학교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먼저 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홀로 교실을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학교를 다니던 A군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최근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점과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지난 17일 새벽 5시10분께에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1층 현

관 앞에서 서울 모 대학교 휴학생 B(여·23)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B씨는 수년 전 사법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자 힘들어했으며, 최근에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께도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전남 부모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꾸중을 들었던 광주 모 고교 2년 C(18)군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광주에서 자신의 처지나 신병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자전거 교통안전 교실
육은 오는 6월29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 북구는 18일 동림동 산동고 친수공원 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에서 자전거 안전운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전거교통안전교실'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강사의 함께 자전거를 타고 트랙을 돌고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에 실시되는 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학내 도로 음주운전 유죄”

광주지법, 교직원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대학교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대학 교직원에게 법원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고영석 판사는 18일 교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교 직원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운전한 대학교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정문이 일반 도로와 연결돼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도

로교통법상 도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0시1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이 대학의 운동장에서 농구장 입구까지 3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6세 여아 수영장에 빠져 중태

6살 여자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중태에 빠졌다.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모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던 A(6)양이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애완견 주위 선물 줬다 '절도' 입건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애완견을 주인에게 선물로 준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진모(여·50)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백모(여·57)씨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발견하고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개를 자신의 지인에게 선물한 뒤 애완견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백씨에게 “모른다”고 발뺌했는데, 경찰에서 “주인없는 개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백씨가) 찾으러 와서 당황했다”고 진술.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농촌 창고 빌려 도박판...45명 무더기 검거

화순경찰, 2명 영장

화순경찰은 18일 농촌 폐가의 창고를 임대한 뒤 도박판을 벌인 임모(45)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가담한 김모(여·54)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16일 자정부터 3시30분 가량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의 한 창고에서 판돈 4300여만원을 걸고 일명 '도리깃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 등은 광주에서 주부 등 도박가담자 40~50명을 모집

한 뒤 승합차를 이용해 도박 장소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 물색조와 감시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도박 현장을 급습해 임씨 일당과 주부 34명 등 모두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대학 학회장이 신입생들

야구방망이로 구타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학회장이 신입생들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북부경찰과 광주 모 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 인문사회대 한 학과 4학년 A학회장이 지난 14일 1학년 B

군 등 11명을 학과 사무실로 불러 엮드려뺨치며 시킨 뒤, 두 세 대씩 때렸다.

A학회장은 학교가 실시한 적성검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B군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적성검사 실시 이틀 전인 지난 12일 학과장과 1학년 대표 등을 통해 검사 일정 등을 알려주도록 했으나 일부 피해학생들은 공지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증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취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9급 종합반 (이론)	9급 문제풀이	법원/검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명품 "강력단과"	합법 소방직 (전문)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특별 특강수업 개강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영역,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법학, 회계, 경제, 교재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시험결과 동일, 경력속까지 동일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특별 특강수업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을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